

주유소, 카페·편의점... '숨인숨'으로 살아남기

광주·전남 8% 넘게 휴·폐업... 셀프주유소는 늘어

휴지·생수 등 경품 없애고 돈 되는 업소 입점시켜

정유업체가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주유소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주유소 업계의 불황으로 휴지와 생수, 장갑 등 무료 판촉행사가 사라지고, 정비업소 외에 카페나 편의점, 식당 등을 입점시켜 수익을 보충하는 등 업계 전반에 '살아남기 위한' 대대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3일 한국주유소협회 광주·전남 지부에 따르면 경영난으로 폐업을 선택한 주유소는 2009년 이후 5년 연속 증가하면서 지난해 한해 동안 30곳에 달했다. 영입이 어려워 잠정적으로 휴업상태인 곳도 70여 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주유업체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것으로 조사됐

다. 올 들어서는 3월 현재 4곳이 추가로 폐업했고, 휴업중인 주유소도 70곳을 넘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협회에 등록된 업소 수가 광주와 전남이 각각 310개와 전남 930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2.2%가 폐업하고 6%에 가까운 주유소가 휴업상태에 있는 셈이다. 이는 한국주유소협회가 발표한 지난해 전국 주유소 폐업업소 244곳 중 지역별로 경기도(43곳)와 경북(29곳)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업계는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휘발유가 인하여 인한 업소 간 경쟁이 치열했고, 도로 개설 등 입지 환경 변화에 따라 휴·폐업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광주·전남지역 주유소들의 휴·폐업이 늘고 있는

이유는 소비 둔화와 값이 저렴한 알뜰주유소의 확산, 수요 대비 과다공급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불황의 여파로 셀프주유소는 급증세를 이어가며 90여 곳으로 늘었다. 또 휴업의 경우는 1억여원의 철거비용이 부담돼 문을 닫지 못하는 업소가 임시방편으로 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휴·폐업 업소 증가는 영업환경의 변화와 함께 업계의 새로운 풍조를 낳고 있다. 주유를 하면 휴지와 생수, 장갑 등을 나눠주며 무료 판촉행사를 하는 업소는 자취를 감췄고, 일정금액을 주유하면 제공하던 할인권과 세차권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또 주유소와 함께 있던 세차장이나 정비업소 외에 카페나 편의점, 식당 등을 병행하는 이른바 '숨인숨'식 영업 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악화로 인한 휴·폐업 위기를 인건비가 적게 드는 셀프주유소로 극복하거나, 패스트푸드나 의류 전문점 등의 운영

으로 주유소 영업손실을 채우려는 사업자들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유소 내에 카페를 입점시킨 광주 광산구의 주유소 사업자는 "주유비 외에 별도로 임대수익을 챙길 수 있는데다 손님도 끌어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문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업자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나 공급가 인하여 알뜰주유소 도입 등 기름 유통에 관한 정책만 내세우는 바람에 주유소간 경쟁이 심해져 힘없는 일반 주유소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오죽하면 본업 외에 커피나 옷을 팔고, 편의점을 내겠느냐?"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주유소협회 전남지부 관계자는 "광주·전남은 최근 휘발유가 하락에도 되레 판매량이 줄고 개점휴업상태인 주유소도 증가하는 열악한 지역"이라며 "정비업소 외에 카페나 편의점 등을 병행하는 영업방식은 더 확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63.16 (-15.48)
- ▲ 금리 (국고채 3년) 1.76% (+0.03)
- ▼ 코스닥 696.97 (-7.80)
- ▼ 환율 (USD) 1104.70원 (-7.70)



이건희 회장 재활 치료중... 1년만에 공개

이건희(73) 삼성그룹 회장이 안정적 인 상태로 건강이 회복돼 현재 재활치 료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최근 이 회장이 삼성서울병원 VIP 병실에 누워있는 모습 <점선> 등이 담긴 사진이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된 것과 관련 "이 회장의 건강 이 안정적인 상태로 회복이 돼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5월 용산 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켜 심폐소생술(CPR)과 심혈관을 넓혀주는 심장 스텐트(stent) 수술을 받

았다. 이후 삼성서울병원 VIP실에서 휠 체어 운동을 포함한 재활치료를 받아왔 다.

이 관계자는 삼성 측에서 직접 이 회 장의 사진을 공개할지를 묻는 질문에 "여러가지로 검토해야 할 게 있다"며 즉 답을 피했다. 이 회장의 사진을 찍어 공 개한 인터넷 언론매체 더 팩트에 대한 소속 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공인의 경 우 사인처럼 초상권이 엄격하게 보장되 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문제가 있는지 는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흥건설 아파트 공급 재개

세종시 6월, 광교신도시 8월 분양... 운영 정상화 단계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중흥건설이 그동안 보류했던 아파트 공급사업을 재개했다.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운영이 정상화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3일 중흥건설에 따르면, 오는 19일 세종시 2-1 생활권에 1446가구를 공급한다. 이 곳은 당초 5월에 분양이 예정돼 있었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51~115㎡ 규모로 구성됐으며 단지가 들어서는 세종시 2생활권은 컨벤션센터와 호텔, 백화점, 업무용 건물 등이 집약된 계획이다. 중흥건설은 2012년부터 이곳에만 9개 단지를 공급했으며 이번이 10번째 분양으로 이를 합치면 1만1884가구에 달하는 세종시 최대 규모의 단일 브랜드 단지를 짓게 된다.

중흥건설 최대 규모 사업단지로 주목받고 있는 수원 광교신도시 사업지구도 오는 8월께 분양하기로 했다. 광교신도시 공급 사업은 검찰수사로 금융권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중단됐으나 최근 관련 협의의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지구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모두 합쳐 2461가구나 공급된다. 아파트 2231가구(전용면적 84~163㎡), 오피스텔 230실(전용면적 70~84㎡)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C2블록은 광교신도시의 핵심 인프라 지역으로 호수공원 조망 프리미엄에 학군을 갖췄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중흥건설은 그동안 미룬 대구 테크노폴리스와 내포신도시, 영암 삼호 대불산단, 전주 만성지구 등도 하반기에 아파트 공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사업이 종료되는 현상이 많아서 연계성을 갖추려면 계획된 공급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며 "아파트 사업 재개와 함께 최고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이전사업 92억 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이하 광주특구본부)가 '기술이전사업화'를 본격 추진한다.

광주특구본부는 3일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및 창조경제 성과구현의 가속화를 위해 광주특구의 우수기술을 활용, 사업화를 추진하는 14개 과제를 선정해 2년간

92억원가량(과제당 6.6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술이전사업화'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으로 '기술이전사업화 사업(11개)'과 '연구소기업 전략육성 사업(3개)'으로 구분된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1천원짜리 45장을 한장에... 전지은행권 발행



한국은행이 오는 9일부터 발행하는 1천원짜리 지폐 45장이 붙어 있는 전지은행권. /연합뉴스

한국은행은 창립 65주년을 맞아 다양한 화폐수집 수요에 부응하고 우리 화폐를 홍보하기 위해 1000원짜리 지폐 45장이 붙어 있는 전지은행권 10만 세트를 오는 9일부터 발행한다.

전지은행권은 낱장으로 자르지 않은 전지 형태로, 1000원짜리 지폐가 가로 5장, 세로 9장씩 인쇄돼 있다. 연결형 은행권으로는 9번째로 발행되는 것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지형으로는 2005년 옛 1000원권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내 기념품 판매코너 또는 기념품 판매대행업체 홈페이지(www.seowonbok.co.kr)에서 살 수 있으며 가격은 1세트당 세금과 포장비 등을 더해 5만9500원이고 1인당 3세트까지 살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상의 "광산구에 세무서 설치해 달라"

광주상공회의소(회장 김상열)가 3일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세무서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광주상의는 이날 건의문에서 "광산구는 첨단과학산업단지, 진곡산업단지 등의 개발과 지하철 2호선 신설 확정으로 기업 이전과 인구 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가까운 세무서가 없어 기업인과 지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할 세무서인 서광주세무서에서 세무 민원을 해결하려면 최장 30km를 이동해야 하는 등 시

간직·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는 실정"이라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또 "서광주세무서는 광산구와 광주 서구, 영광군까지 관할하고 있어 관할지역 인구만 76만 3000여명으로 다른 세무서에 비해 관할 범위가 너무 넓어 광산구 분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상의는 "올해 개통된 호남KTX와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빛산산업단지 등의 개발로 현재의 불편함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산구와 영광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광산세무서의 설치를 촉구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전KPS, 코스피100지수 새로 편입

발전설비 정비회사 한전KPS가 오는 12일부터 자사 주가가 코스피100지수에 새로 편입된다고 3일 밝혔다.

코스피100지수는 국내 업종 대표 우량주로 구성된 코스피200지수 중목 가운데 시가총액이 큰 100개 종목으로 이뤄져 있다. 한전KPS는 지난해 5월 코스

피200 지수에 처음 편입됐으며 뒤이어 세계 양대 주가지수인 MSCI 신흥국지수와 FTSE 선진국지수에도 편입됐다. 한전KPS는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855억원, 영업이익 2158억원, 당기순이익 1683억원을 기록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호남 0.1%를 잡는다! 확실한 투자, 보장된 미래

국내최초! 전국최대! 쇼핑타운 튜브가 드디어 광주에 옵니다

- 뛰어난 입지
- 쾌적한 단지
- 대규모 주차장
- 상시 웨딩박람회

- 순환도로, 사통팔달, 호남권 1시간내에 도달
- 휴게공간, 조각공원, 수변공원, 중앙공원 조성
- 5000평 규모 야외주차장과 지하주차장
- 참가비용과 부스비용 없는 365일 웨딩박람회

- 탁월한 집객효과
- 높은 경제성
- 확실한 투자프리미엄
- 전문화된 운영

선착순 호수 지정

임대 보장제도 도입

중도금 무이자

365일 홍보 이벤트

2016년 6월 준공예정

문의 062.651.9770

시행사 (주)SGA파트너스 대행사 (주)니소스에이엠씨 신약사 하나자산신약 ■청약계좌:하나은행 749-910013-98504 (주)하나자산신약 (이계약시 권역 관할됩니다.)